

“렌탈시장 확대·가전시장 성장” “경영화두는 혁신... 미래사업 집중”

1조 클럽 향한 ‘마법의 주문’

(매출)



지난해 매출 8000억 훌쩍 넘어
최근 4년간 年 평균 성장률 21%

SK매직이 올해 ‘매출 1조 클럽’ 진입을 위한 ‘마법’을 본격 시작했다.

1조원 매출을 달성하고 내진 김에 기업공개(IPO)까지 가기 위해 벌써부터 상장 주관사도 정해 놓은 상태다.

14일 SK매직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약 8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SK매직이 공시한 1~9월까지의 매출액(연결 기준)은 6458억원이었다. 지난해 매출이 8000억원을 훌쩍 넘으면서 올해 매출 1조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SK매직은 2013년 당시 29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3544억원(2014년)→3903억원(2015년)→4692억원(2016년)→5479억원(2017년)→6591억원(2018년)으로 빠르게 늘었다. 특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만 21%로 성장 속도가 빠른 모습이다.

2018년 3월 당시 류권주 SK매직 대표는 ‘2020년까지 매출 1조원, 렌탈 누



류권주 SK매직 대표이사.

적 계정 300만’을 중심으로 한 ‘비전 2020’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류 대표는 “우리 모두가 2년전 약속했던 목표인 ‘비전 2020’을 완성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져본다”면서 구성원들에게 ▲제품 품질 혁신 ▲원가 절감 ▲서비스 품질 혁신 ▲차세대 전자적자원관리(ERP)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BPR) 성공 완수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류 대표는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렌탈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확대하고 가전 시장의 성장 정체를 돌파해 올해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자”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히태수 회장 디자인 싱킹 심포지엄



GS 에너지 등 임직원 대거 참여
선진 기업 혁신 방법론 계열사 전파
사업진화·미래역거리 발굴 강조

히태수 GS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경영화두로 ‘혁신’을 제시했다. 히태수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로 기존 사업 진화와 미래사업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히태수 회장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스탠퍼드 디자인 싱킹 심포지엄 2020에 계열사 CEO 등 임직원 100여명과 함께 참석해 혁신을 강조했다 GS가 14일 전했다.

히 회장은 스탠퍼드대 디자인 센터장인 래리 라이퍼 기계공학과 교수 등과 만나 “외부와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실리콘밸리 선진기업들의 혁신 방법론을 각 계열사에 전파해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들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 상대들과 협력



히태수 GS 회장.

관계를 구축해 건강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히 회장은 연초 신년 모임에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강조한 데 이어 곧바로 직접 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마인드를 독려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혁신 전도사로서 변화의 신호탄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GS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법인 설립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되면 혁신 문화 정착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 전략을 펼칠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히 회장이 직접 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마인드를 독려하는 기회를 마련

하고 나선 배경에는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GS는 전했다.

또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는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 세계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함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GS에 따르면 히 회장은 GS홈쇼핑 대표 시절 ‘흐름을 주도하는 업체’를 지향하며 패션 등 상품의 수준을 끌어올렸고, 케이블 SO인 GS강남방송과 GS올산방송을 매각하는 대신 모바일 투자를 대폭 늘려 업계 1위 발판을 마련했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2011년부터 국내외 스타트업 500여곳에 직·간접적으로 총 3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GS에너지,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GS EP S, GS&R, GS파워, GS건설 등 계열사 임직원들이 대거 참가했다.

스탠퍼드 디자인 싱킹 심포지엄 2020은 미국 스탠퍼드대의 ‘스탠퍼드 이노베이션 & 디자인 연구센터’(스탠퍼드 혁신센터)가 주최한 행사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문제 해결 혁신 방법론으로 알려진 디자인 싱킹을 소개하고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GS는 전했다.

/양성호 기자 ysw@metroseoul.co.kr

온라인투어

www.onlinetour.co.kr
상담문의 1544-3663

터키일주(직항+특급호텔) 8/9일
799,000~ 1/17,20,21,25,28,31~ [선착순]

동남아/홍콩/대만

보라카이/세일링보트/전신마사지 4/5일
338,000~

마닐라/루아사온천 3일
248,000~

푸켓 특급리조트 5일
528,000~

방콕/파타야/바나나/절자유 5일
478,000~

다낭/호이안/바나산

448,000~

다낭/후에/호이안/노티 4/5일
568,000~

나트랑/미니버치해변 5일
498,000~

라오스/비엔티엔/방비엔 5일
398,000~

나트랑/항공권/자유여행 4일
318,000~

코타키나발루/반딧불 5일

448,000~

코타키나발루/엑스세리조트 5일
598,000~

브루이/엘피아어 호텔/노스원 4/5일
1,248,000~

대만/야우+제주+스핀+화면 4일
499,000~

싱가포르/말라카/초호바루 4/5일
898,000~

유럽

발칸 2국/동유럽 4국 9일
1,190,000~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2일
1,790,000~

베네룩스/프랑스 7일
1,290,000~

서유럽 3국/남부투어 8/9일
1,290,000~

서유럽 3국/한상남부 10일
1,790,000~

서유럽 4국/파리경 10일
1,890,000~

서유럽 4국/6국 12일
1,990,000~

스페인/포르투갈 9일
1,590,000~

이집트 완전일주 10일
1,899,000~

중국

장가계 천문산 4/5일
199,000~

청동/5.4광장/특급호텔 3일
129,000~

게임/양식(체인호텔) 5/6일
399,000~

장가계적왕/원가계 4/5일
399,000~

북경/만리장성/서커스 4일
129,000~

서안(화산)/진시황릉 4일
289,000~

여강(리장)/중경 4일/5일
799,000~

황산/항주/온케아블라 4/5일
449,000~

공명/석림/구항동굴 5일
719,000~

호주/뉴질랜드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999,000~

시드니/센트럴코스트 6일
999,000~

뉴질랜드 북섬 6일
1,299,000~

미주/특수

미서부 6대 캐년(노우먼트벨리) 10일
1,590,000~

미중부 캐나다(퀘벡) 10일
2,290,000~

시애틀/캐나다 로키 7/8일
999,000~

시애틀/로키/미중부 캐나다 15일
2,490,000~

남미(이과수/우유니) 4국 11일
4,990,000~

광시안

사이판 PIC리조트 골드 4월/5월
569,000~

괌 PIC리조트 골드 4/5일
699,000~

괌 윈드리조트 4/5일
499,000~

일본

벵부/유추인/후쿠오카 3일
249,000~

오사카/나라/교토 3일
299,000~

국내

[엘리버드] 아시아나 제주여행 3일
155,000~

[NO티, NO음식] 고평격 제주 3일
260,000~

[여수여행] 유람타마나 에어텔 3일
253,000~

■ 한지서 별도 지불해야하는 기사, 가이드경비, 003로 표시(상세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참조) ■ 여행상품 가격표 내역: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경비 발생할 수 있음, 선택관광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가능(+510~\$300상).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포함여부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참조(www.onlinetour.co.kr)
■ 여행 전 반드시 여행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여행사 규정을 꼭 읽어주세요. 여행사 규정은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여행사 규정이 변경될 경우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정이 우선합니다. 여행사 규정이 변경될 경우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정이 우선합니다. 여행사 규정이 변경될 경우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정이 우선합니다.